

한 줄의 광고카피가 상품의 인기를 결정하듯 한 컷의 사찰 광고가 사찰과 종단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불교TV의 개국 이후 불교영상포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홍보 또한 TV전파를 이용한 30초의 미화 '광고'가 도입돼 주목을 끈다.

낙산사, 옥천사, 남해 망운암, 우리절, 한마음선원, 제주 약천사 등이 이미 이같은 사찰 광고를 불교TV로 방송했으며

◇ 동해를 바라보는 해수관음상의 아름다운 자세를 영상에 담은 양양 낙산사의 btv 사찰광고



업에 한창이며, 승가사와 진관사는 내년 4월까지 불교TV 간판프로그램의 하나인 '선재님의 푸른요리' 협찬광고를 방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총지중, 진각중, 연주암, 봉은사, 조계사, 법련사, 여수 향일암, 부산 해원정사, 화엄사, 마곡사, 직지사 등의 사

# 사찰홍보 CF 제작 '바람'

한마음선원 · 구룡사 등 7곳 방영... 13곳은 대기중

현재는 구룡사가 사찰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 도선사와 밀양보문사가 10월중 방송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

칠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같은 사찰광고는 공중파 방송에 비해 낮은 광고수익을 만회하는 종교방송사만의 특이

한 방법. 더불어 TV에 익숙한 불자들에게 영상으로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불교를 느끼게 하고 그들을 법당으로 이끌어

내는 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 광고(제작 현대프로덕션)도 매일 '날마다 좋은날'(10:15~

11:05) 프로그램에 이미지광고로 방송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청담종교 개교 20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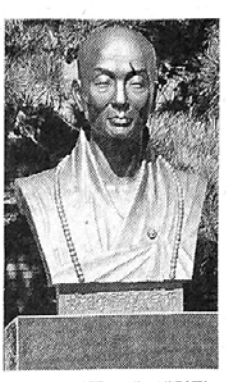
음악회 · 휘호전 · 성상제막식 등 다채

종립청담학원(이사장 동광 스님)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예술제 전시회 한일청소년 교류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청담스님 25주기가기도해 지난 11일 스님의 성상 및 생애비전립 제막식은 개교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또한 지난 9일 개교기념식에 이어 정통문화의 우수성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는 세종관학단 초청연주회가 열

렸다. 이어 10일에는 자매학교인 일본 부사학원 수려학당이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눈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장기자랑과 축구경기를 갖기도 했다. 또 경기도 도립극단을 초청하여 '무엇이 될꼬하니'도 공연됐다.

이와함께 전시회로는 청담스님일대기와 청담학원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와 유품휘호 10여점이 최초로 전시된 청담스님 휘호전시회



◇ 청담종교에 세워진 청담스님 성상

청담스님화전 기사작품전시회 등도 개최됐다.

## 각원사 국내최대 대응전 낙성식

착공 10년만에... 삼천불 조성도 추진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는 15일 단일건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대응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10여년동안 총 55여억원의 불사비로 낙성된 대응전은 2백평에 전면 7칸 측면 4칸으로 외포 내포의 불교전통 양식으로 건립됐다.

주지 법인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부대중

이 수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응보전을 건립하게 됐다"며 "향후 포교와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원사는 지난 77년 남북통일 기원 청동대불사 조성을 시작으로 칠성전, 관음전, 법종루, 요사채 등의 불사를 회향했으며 앞으로 삼천불조성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감자로서 밝혀 CATV 26사중 9위

불교TV의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한 82.7%로 전체 26개 케이블TV 가운데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유선방송 위원회가 최근 국회 문화공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TV의 재방송비율은 95년 54.5%에서 66.1%로 비교적 증가해 전체 케이블TV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지중 소비자보호위 업무개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총지중 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출범이후 3개월간 기초자료수집 및 준비작업을 거쳐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총지중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는 지난 7월 종단협으로부터 1천만원의 지원받아 자체기금 2천만원 등 3천만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서동석(전 민불련의장)씨를 기획실장으로 영입했다. 이와함께 전문요원배출의 관건이 되는 교육프

로그램 실시를 비롯한 장단기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구체화된 피해구제사업으로 '불교소비자보호센터 고발전화'를 설치하며 소비자의 불만이나 상품구입 사용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전화 팩스 우편 또는 PC통신으로 접수받는다. 일단 접수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키로 했으며 수도권 및 부산 광주 등 5개도시 사찰연합회에 소비자불만처리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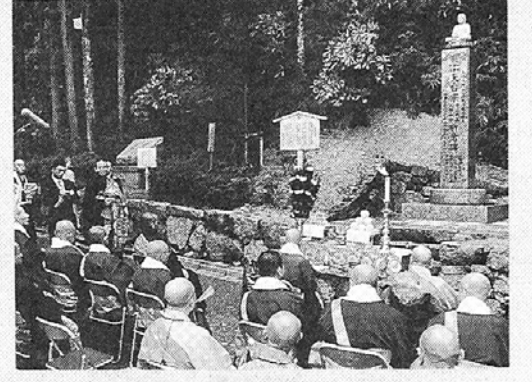
## 방송가 소식

대구불방 초대 지사장 법타스님 선임

불교대구방송은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초대 지사장에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을 선임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영위 부위원장에 락해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법조스님(고운사 주지)을, 감사에는 해공스님(관암사)과 법일스님(기림사)을 선출했다.

'한국의명찰' 2집 발매

불교TV 영상교과사업단은 '한국의 명찰' 제2집을 17일 부터 발매한다. 또한 11월에는 불교TV 다큐멘터리 '티벳불교'도 비디오로 출시할 계획이다.



도움종정, 명양종국불교협회부회장, 우메야마 좌주 등 한·중·일 친선대중 대표들이 지난 11일 일본 연례사에서 봉행된 천태대사 열반 1400주년 기념 3국친선대중 합동대법회에 참석했다. 합동법회에서 일본 천태종 스님들이 명성(법파)의식을 시행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원비가 제막됐다. <본지 97호 참조>

##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 · 조항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날날 선종 본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조계사암 (관광버스 대기) 부산: 10월 26일 오후 1시 부산시민회관 앞 (관광버스 대기) ◇참가비: 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시간을 지켜주시시오.

김원우 기자

## 원로불자 코미디언 임희춘씨 체육대회 열어 2만노인 위안

원로 불자코미디언이자 대한노인복지위원회 회장인 임희춘씨(사진)가 지난 10일 전국 2만여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전국노인 체육대회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었다.



임씨가 지난해 동료코미디언들과 함께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또 지난 5월에는 제 1회 노인예술제를 열어 별다른 여가공간과 시간이

없는 노인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지난 83년 연에인 불교신도회를 만들기도 했던 임희춘씨는 요즘도 부인과 함께 도시사를 찾는 신실같은 불자다.

여유나 조류를 놓아주며 가족이나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던 방식이 고이된 양로원의 소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으로 '인간방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목탁 소리

도 필선 (취재 1부 기자)

소극적인 과거의 방생행태가 생활속 장 밥상'은 지난 13일 수덕사에서 정기기공 및 시신기공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도제형식의 방생법회를 개

최했다. 또 봉선사(주지 운경)도 17일 원주 소백산마을에서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으로 '인간방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자리잡는 '인간방생'

소극적인 과거의 방생행태가 생활속 장 밥상'은 지난 13일 수덕사에서 정기기공 및 시신기공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도제형식의 방생법회를 개

최했다. 또 봉선사(주지 운경)도 17일 원주 소백산마을에서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으로 '인간방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의 자각의 소리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방생의 형태 변화는 사회적으로 불교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실장은 과거 기록적 행사로

그치는 방생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군부대 교도소 병원 고이원 양로원 특수장애시설 등을 자비실현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방생의 형태는 '봉사하는 불교'가 곧 '수행하는 불교'라는 한층 높은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단발적인 구조성 행사를 지양하고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성숙된 불자로서 '생명공양'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알리는 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比丘 鏡潭道光 禪師께서는 서緣이 다하여 佛紀 2540년 9월 30日(1996年 陰 8月 18日)午前 2時 40분에 스님의 토굴인 경주시 울동(두대리) 산 60-1 聖住庵에서 入寂하시어 스님의 뜻에 따라 10월 2日(陰 8月 20日)午前 11時 聖住庵에서 永訣式과 茶毘式을 엄숙히 봉행하였음을 늦게나마 紙面으로 알려드립니다.

佛紀 2540年 10月 日 慶州市 聖住庵 上座 空摩 巨芙 合掌

## 49齋 안내

지난 10월 2日(陰 8月 20日) 西部大衆이 지켜보는 가운데 茶毘式을 봉행하여 스님의 영롱한 법신사리 10과를 수습하였습니다.

49齋일은 오는 11월 17日(陰 10月 7日)午前 10時 聖住庵에서 봉행하겠습니다.

佛紀 2540年 10月 日 慶州市 聖住庵 上座 空摩 巨芙 合掌

## - 강제연행 구속된 진관스님의 즉각 석방을 발원하면서 -

자비와 평등의 실현이 곧 불국정토로 가는 길임을 확인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오후 8시경 전북 김제에 소재한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종무감사를 마치고(금산사 주지스님, 중앙총회의원 스님 4명, 총무원 호법부장, 총무원 직원4명) 전주 시내 모식당 앞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인신 진관스님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직원과 경찰 2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부통치 시절부터 부처님의 파사현정지의로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서 서서 헌신하였던 진관스님의 행적은 불교계 안팎을 떠나 고마운 모습 중의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시대라 일컫는 이 시대에 진관 스님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의 고유 업무인 종무감사를 수행 중인데, 총회의장단 및 종단 책임자에 대해 정부나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전격구속한 것은 진관스님 개인문제를 떠난 불교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르샤바에서 북한측 인사와 회담한 천주교 문성현 신부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수사가 기각되었던 전례를 생각할 때 법의 형평성에도 진관스님의 강제연행 구속수사는 맞지 않습니다. 진관스님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로서 인권보호활동 등 소외되고 그늘진 이들의 편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미전향 장기수 노인들의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그 어른들의 송환문제를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우리 겨레의 끝없는 소망입니다. 성직자로서 진관스님의 소박했던 통일염원의 행동들이 관제당국의 지나친 노력으로 강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간 진관스님의 신변을 걱정하며 부당한 구속에 대해 조속한 석방을 노력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건강한 석방을 위해 계속되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심귀명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0(1996)년 10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동국대학 법학과 교수, 교수불자회 회장 법조학회 회장 한상범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보내주시 분은 아래구좌로 보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구좌 : 006-21-0673-366 (박용모)